

■ 가 지계관(地界觀)으로서의 지관(地觀)

View of Earth as the Earthly Realm

연구 개요 및 목적

▣ 연구 배경

대순사상의 천관(天觀)과 지관(地觀)에 대한 현대적 의의 고찰
땅에 대한 관점으로서의 지계관이 가지는 사상적·철학적 중요성

▣ 연구 목적

대순사상의 지계관 분석 및 동학사상 등과의 비교 연구근대성해
원상생 등 주요 의제를 통한 지계관의 현대적 의의 도출인신강세
와 천지공사의 지계관적 측면 고찰



대순사상과 동학사상의 지관(地觀) 비교

대순사상의 지관

- 구체적 신명계(神明界) 포함
- 실체적 지계(地界)로 표현
- 구천 아래의 천지개념 포괄
- 땅은 신명으로 이루어진 형체를 가진 대표적 존재

동학사상의 지관

- 무위이화(無爲而化) 강조
- 기화(氣化), 조화 등 보이지 않는 실체로 표현
- 구천 아래의 천지개념 포괄
- 추상적 원리로 지관 설명

두 사상의 지계 포괄성과 차이점

두 사상 모두 다중적 지관을 가지나, 대순사상은 신명계를 포함한 지계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동학사상은 보이지 않는 실체와 원리로 지관을 설명한다. 대순사상의 지관은 인신강세를 통해 속성과 실체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 『전경』 [공사] 3-5, 『행록』 4-17 등 관련 근거 참조

인신강세와 조선 선택의 배경

인신강세(人神降世)의 개념

- 구천(九天)의 상제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강림하는 현상
- 속성과 실체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됨
-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고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기 위한 강세
- 인간 세계에서 천지공사를 행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

조선이 선택된 이유

무명의 약소민족 해원

"참화 중에 문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려 함이노라"

『전경』 「원지」 1-11

신명 우대의 전통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전경』 「교법」 3-22

삼신산의 성지(聖地)

"봉래산영주산방장산의 세 산이 삼신산으로 불리어 오던 곳으로다"

『전경』 「행록」 1-2

인신강세로 시작된 대순사상의 지계관은 땅을 신명으로 구성된 실체로 보며, 조선의 선택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천지공사를 통한 세계 질서 재편의 시작점이 된다.

천지공사와 지계관의 성립

천지공사란

-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신적 공사
-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
-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 선경 세움
- 신명을 통한 땅의 변화 시작

지계관 성립 과정

- 구천의 인신강세로부터 시작
- 구천이 동토에 그쳐 조선에 강세
- 삼신산(蓬萊山·瀛洲山·方丈山)의 성지적 의미
- 천계와 지계의 음양합덕 구현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원리

천지공사에서 지계관 성립의 핵심 원리로, 세계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된 근거이자 조선에서 인신강세가 이루어진 원리적 배경입니다.

원시반본의 원리에 따라 땅의 중심인 삼신산이 있는 조선이 천지공사의 무대가 되었으며, 지계관은 천지공사를 통해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風)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

- 『전경』 「행록」 4-17

* 『전경』 「공사」 3-5, 「예시」 29, 「행록」 1-2 등 관련 근거 참조

해원사상과 지계관의 관계

• 해원(解冤)의 의미

원과 한(恨)을 풀어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는 대순사상의 핵심 원리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전경】「교법」 1-67)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고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는 과정에서 해원은 필수적 과정

동학의 실패 원인

- 해원사상의 부재
-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부족
- 개틀링(Gatling Gun) 등 서구 무기에 대한 인식 부재
- 전국적 규모의 봉기였으나 전략적 준비 미흡

대순사상의 참동학화

-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전경】「권지」 1-11)
- 해원사상의 도입으로 동학의 한계 극복
- 천지공사를 통한 실질적 변화 추구

지계관과 해원의 연계

땅의 해원은 천지공사 중 해원공사의 주요 취지로, 인신강세가 조선에서 이루어진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다. 대순사상은 지계관을 통해 과거의 해원 없는 서구의 근대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생적 근대성의 원리를 제시한다. 지계관은 천계관보다 상대적으로 원(冤)이 많은 영역으로, 인신강세를 통해 해원의 장(場)으로 작용한다.

* 『전경』 「공사」 3-5, 「교법」 1-67, 「권지」 1-11 등 관련 구절 참조

대순사상 지계관의 근대성

대안적 근대성: 해원과 상생의 원리

- 서구 근대성: 과거 폐기, 미래 지향적 전망 중심 대순사
- 상 근대성: 과거의 해원을 통한 상생적 미래 구축 지계관
- 에서 출발하는 자생적 근대성 모색

한국 근대화와의 연관성

- 천지공사 시작 시기 GNP 세계 최하위 수준이던 한국
- 식민지 경험국 중 유일하게 성취한 삼중 근대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

문화적
선진화

“진정한 근대성은 해원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대순사상에 나타난 자생적 근대성의 원리이고 이는 천계관보다 상대적으로 원이 많은 지계관으로부터 시작되며 인신강세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었다.”

* 『전경』의 관련 구절을 참조한 해석임

결론 및 시사점

▲ 대순사상 지계관의 학술적·사회적 의의

인신강세를 통한 형이상학적 지계와 형이하학적 지계의 통합적 이해 원시

반본의 원리가 적용된 지계관의 특수성과 현대적 재해석

-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계관의 실질적 영향력 고찰
-

▲ 동아시아 사상의 지평 확대

- 천지공사를 통한 동아시아 지계관의 새로운 해석 제시
- 동학과 대순사상의 지관 비교를 통한 한국 종교사상의 특수성 재발견
- 서구 근대성에 대한 대안적 사유 체계로서의 가능성 모색

▲ 해원·상생의 현대적 가치 제언

지계관에 담긴 해원·상생의 원리는 현대 사회의 갈등 해소와 공존 방안으로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으며, 과거의 원에 대한 해결 없이 미래로만 나아가는 서구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전경』의 관련 구절들을 중심으로 정리된 해석임